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2-지역이슈-6(2022.0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의 영향



CONTENTS

- I. 대러 제재의 주요 내용
- II. 러시아의 주요 대응 조치
- III. 러시아의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정책 추진
- IV. 대러 제재의 러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
- IV.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작성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2-3603)
ykj@koreaexim.go.kr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요약 >

1. 대러 제재의 주요 내용

- (수출통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미국은 FDPR(해외직접제품규칙)에 따라 7개 분야 57개 품목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발표함. 7대 분야는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이며, EU,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최혜국 대우 폐지)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였으며, 향후 이 국가들로의 러시아 상품 수출시에 높은 관세 부과에 따라 수출가격 상승이 전망됨.
- (에너지 수입 중단)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EU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 중단을 발표하였음. EU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천연가스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임.
- (금융)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였으며,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을 발표하였음.
- (SWIFT 제재) 미국, EU는 7개 은행(VTB, 방크로시아, 앳크리티예, 노비콤, 소브콤, PSB, VEB)를 대상으로 SWIFT 제재를 시행하여, 이 은행들을 이용한 국제 교역대금 결제와 송금을 제한하고 있음.

2. 러시아의 주요 대응 조치

- (수출금지)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내의 공급 부족과 가격상승 방지를 이유로 올해 연말까지 219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281개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였음. 또한 국내 식량 수급 안정을 이유로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음.
- (국유화)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국유화 조치를 강행하는 내용의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르노, 폭스바겐, 토요타 등의 자동차 기업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 등 ICT 기업, 이케아, 맥도날드 등 57개 기업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음.
- (금융 및 외환) 러시아 거주자(국적자 또는 법인)가 무역거래에서 획득한 외화의 80%를 3일 이내에 매각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의 국외 반출을 금지함.
- (비우호국 지정)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48개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금융거래 제한, 투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또한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수출대금의 루블화 결제를 추진하고 있음.

3. 러시아의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정책 추진

- (중국) 중국은 2014년에 이어 2022년에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고 있음. 러시아와 중국은 2014년 이후 교역, 금융, 기술, 군사 등의 부문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2022년 서방의 대대적 제재 시행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인도) 인도는 유엔 안보리의 대러 규탄 결의안에서 기권하였으며, 서방의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러시아와 군수, 에너지 교역, 금융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중동) UAE, 이란, 이라크 등은 서방의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와 에너지, 군사 등의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국가들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4. 대러 제재의 러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

- (거시경제 영향) 러시아 경제는 2022년 급격한 침체(-6~-15%의 마이너스 성장)가 전망되며,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약 20%), 루블화 환율 상승 및 주가 하락 등이 예상된다.
- (디폴트 가능성)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계좌에 예치된 외환 동결, SWIFT 제재에 따른 거래 불능,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 채무에 대한 루블화 상환 정책 등의 영향으로 (기술적)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됨.
- (교역 감소) 서방 국가들의 에너지 수입 중단 정책에 따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러시아의 수출 제한 정책 등으로 전반적인 교역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외국기업 활동 중단) 400여 개에 이르는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 기업들의 철수는 고용 등에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5.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 (제재 참여) 한국은 2014년에는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22년에는 대러 제재(수출 제한, SWIFT, 금융기관 거래)에 참여하고 있음.
- (교역)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수입품인 에너지 등의 교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일부 곡물, 광물, 희귀가스 등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 (현지 진출기업) 러시아로의 부품 공급 차질에 따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현지 공장 가동에 차질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루블화 하락에 따른 환차손 발생도 전망됨.
- (금융 및 물류) 러시아와의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대러 물류망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 조선업의 선박 발주와 현지 건설 부문 진출이 연기되거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I. 대러 제재의 주요 내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제재

- 2022년 2월 24일(이하 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 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4월 8일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에 전투가 계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정치, 경제 분야의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여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정치, 경제 제재를 시행 및 강화하고 있음.

1. 교역 관련 제재

대러시아 수출 제한 조치

- 미국은 FDPR(해외직접제품규칙)에 따라 기존에는 수출통제를 받지 않았던 7개 분야 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발표함.
 - *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에 미국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7대 분야는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이며, 관련된 57개 품목이 수출 통제의 적용 대상임.
-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이 참여함.
- 아울러 석유 정제산업 및 항공우주 산업에 관련된 물품이나 기술의 대러시아 수출을 금지함.
- 사치품의 대러시아 수출도 제한하여 보석, 캐비어, 와인, 핸드백, 가죽제품, 신발, 의류 등 300유로 이상의 품목, 5만 유로 이상의 자동차도 대러시아 수출이 제한됨.

대러시아 수입 제한 조치

- EU는 러시아산 철강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쿼터를 다른 국가에 할당하여 안정적인 수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임.
- 또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보드카와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함.
- 이 품목들은 원자재 이외의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으로, 이에 대한 통제를 통해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됨.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폐

-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에 해당하는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적용의 중단을 발표함.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관세 혜택이 폐지되어 러시아산 수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됨.
- EU,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들도 미국의 관세 혜택 폐지 조치에 동참을 선언함.

에너지 관련 제재

- (가스관) 독일은 2021년 9월에 완공된 발트해 해저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에 대한 승인절차를 중단하여, 현재 가스관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음.
- (러시아 기업 자회사 국유화) 독일 정부는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Gazprom의 독일 내 자회사인 Gazprom Germania¹⁾를 일시적으로 국유화한다고 발표함.
 - 독일 정부는 독일 내의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해 Gazprom Germania를 신탁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조치에 따라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은 2022년 9월 30일까지 Gazprom Germania의 신탁관리인이 될 것으로 알려짐.
 - 독일 정부는 이외에도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Rosneft의 독일 자회사를 국유화하거나 의결권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수입 중단) 미국, 영국, 캐나다 및 일부 EU 회원국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 중단을 발표하였음.
 - 미국과 캐나다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했으며, 영국은 202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계획임.
 - * 미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비중은 원유 1.8%, 석유제품 6.7%이며, 캐나다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비중은 미미함. 영국은 원유 수입의 0.9%, 석유제품 수입의 3.3%를 러시아산이 차지함.²⁾
 -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발트 3국은 EU 회원국들 중 처음으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의 중단을 발표하였음.
- (EU의 단계적 수입축소) EU는 석탄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임.³⁾
 - EU는 2022년에는 천연가스 수입규모를 기존의 1/3로 줄이며, 2030년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EU는 대체 에너지의 공급처 확보와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통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1) Gazprom Germania는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가스를 공급, 관리하는 업체로, 독일 내에 대규모 가스 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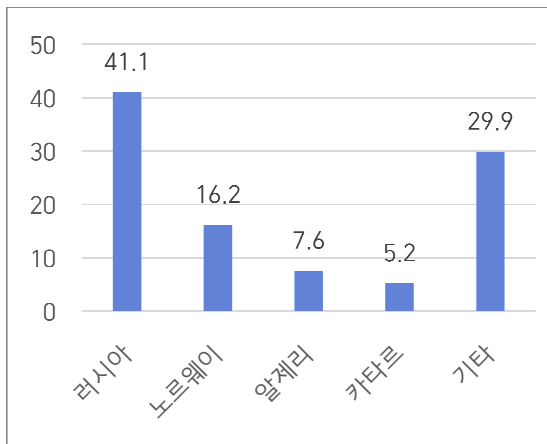
3) EU에서는 국가별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입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등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에 반대하고 있음.



- * 유럽의 러시아산 수입비중은 천연가스 41.1%, 원유 26.9%(원유 및 석유제품 23.0%), 석탄 46.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⁴⁾ 유럽 주요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비중은 독일(49%), 이탈리아(46%), 프랑스(24%) 등임.⁵⁾ 또한 유럽 주요국의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비중은 폴란드(58%), 독일(30%), 네덜란드(23%), 벨기에(23%), 영국(11%) 등임.⁶⁾
- (투자 제한)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가 제한되고, 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장비, 기술, 서비스의 대러시아 수출이 제한됨.

[그림 1] EU의 천연가스 수입 비중(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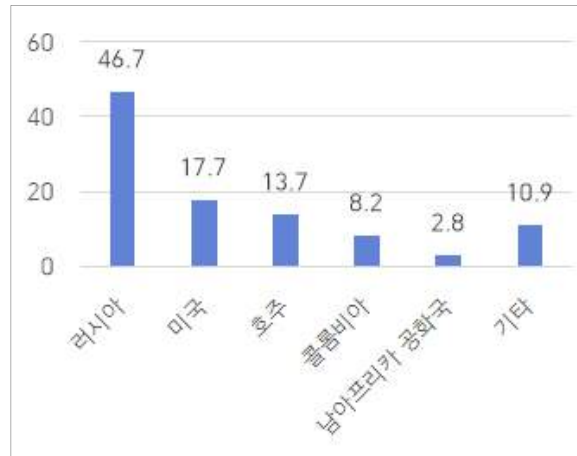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그림 2] EU의 석탄 수입 비중(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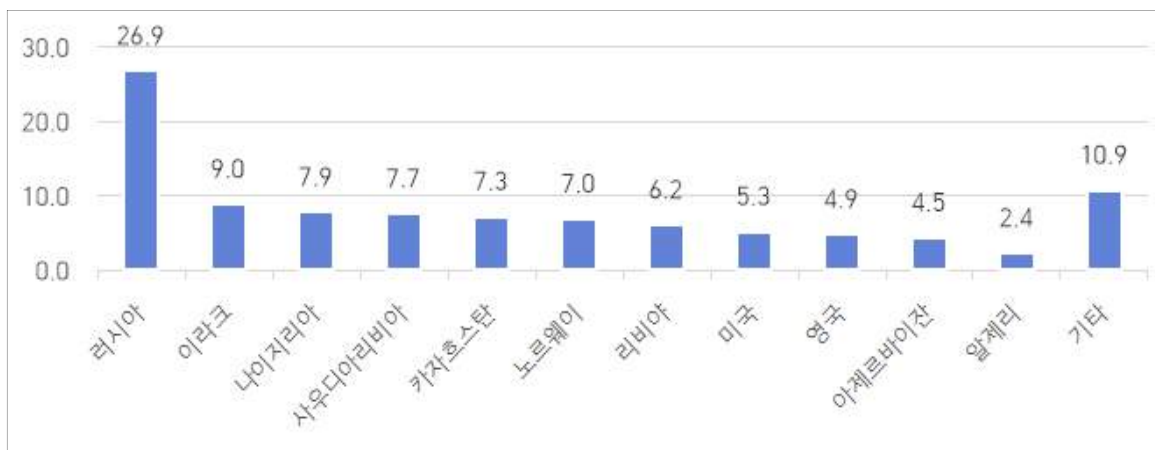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그림 3] EU의 원유 수입 비중 (2019년 기준)

단위: %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4)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5) www.statista.com 2022년 2월 24일.

6) IEA. Oil Market and Russian Supply.



EU의 대체 에너지 확보 정책

- EU는 2022년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예상규모 1,550억 m³ 중 1,120억 m³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임. 구체적으로는 러시아 외의 국가들로부터 LNG 500억 m³와 천연가스 100억 m³를 수입하고,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200억 m³ 규모의 천연가스 수입을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함.⁷⁾
- EU는 중장기적으로 세계 2위 가스 수출국인 카타르로부터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리는 방안과 미국, 앙골라, 알제리, 리비아 등으로부터의 수입량 증대를 계획하고 있음.
 - 현재 카타르산 천연가스 수입은 EU 전체 수입량의 약 5%를 차지하며, 이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⁸⁾
 - 최근 미국으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EU의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은 2019년의 16%에서 2021년 28%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 2월에는 44%로 급증하였음.⁹⁾

2. 금융 및 외환 시장 제재

금융기관 제재

-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을 발표함.
 - 러시아 전체 은행 자산의 35% 비중을 점유한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Sberbank)와 42개 자회사들의 계좌동결 및 거래 금지. 이외에 VTB(자산규모 2위), VEB, PSB(9위), 앳크리티에(7위), 소브콤(8위), 노비콤, 알파뱅크(4위) 등 주요 은행에 대해서도 계좌 동결 및 거래 금지¹⁰⁾
 - 신규대출 및 출자 제한 : 국영은행인 가스프롬 은행(Gazprombank)와 농업은행(Agriculture Bank), 민간 은행인 알파 은행(Alfa Bank), 모스크바 은행(Credit Bank of Moscow) 등이 대상

국채 발행 및 유통시장 제재

- 미국 시장에서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의 채권 발행 및 유통을 제한함.
- 미국 시장에서의 러시아 국채 발행은 2021년 4월의 제재를 통해 이미 제한되었으나, 2022년 2월 이후에는 국채의 유통도 제한됨.

7) www.bloomberg.com 2022년 3월 8일.

8)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량의 대부분을 장기계약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로 주로 수출하고 있음. 2022년 1월 미국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카타르에 요청한 바 있으며, 카타르는 2026년까지 가스 생산량을 현재 생산에서 40% 늘리기 위해 28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https://www.sedaily.com> 2022년 1월 25일.

9) European Commission. EU-US LNG trade. 2 February 2022.

10) 백종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은행산업 현황 및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2년 3월 21일. 제재 대상 은행들에 대해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금 결제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24일까지 거래 제한이 유예됨.



SWIFT 제재

- 미국과 EU는 7개 은행(VTB, 방크로시아, 앳크리티예, 노비콤, 소브콤, PSB, VEB)을 대상으로 국제자금 결제망인 SWIFT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은행들을 이용한 국제 교역대금 결제와 송금이 제한됨.
- 다만,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와 가스프롬뱅크(가스프롬의 자회사로 주로 가스 대금 결제에 이용)는 제외되어 이 은행들은 현재(4월 8일)까지 SWIFT 이용이 가능함.

[표 1] 2022년 제재의 주요 특징

참여국	○ 미국, EU 이외의 다수 국가들 참여: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등
금융 제재	○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 등 주요 은행에 대한 제재 ○ SWIFT 제재 ○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외환보유계좌 동결
교역 제재	○ 주요 첨단 품목 및 부품,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 ○ 최혜국 대우 폐지
인적 제재	○ 푸틴 대통령과 두 명의 자녀 포함
에너지	○ 천연가스, 원유, 석탄 등 에너지 수출 제한 ○ 에너지 부문 신규 투자 금지
기업 활동	○ 다수의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들의 철수 또는 영업 중단 ○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SAP, 오라클, IBM, 블리자드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중단



II. 러시아의 주요 대응조치

1. 교역 제재 및 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응

러시아의 수출금지 조치

-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내의 공급 부족과 가격상승 방지를 이유로 올해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자제품, 반도체, 공업 및 의료 장비, 교통수단 등이 포함된 219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281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제를 도입함.
- 수출금지 품목의 수출은 러시아 관세청이 통제하며, 수출 제한품목의 관리는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등에서 담당함.
- 수출금지 대상에는 러시아 주도 경제기구인 EAEU 회원국(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들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등의 지역에 대한 수출품은 제외됨.
- 수출금지 조치의 적용대상은 러시아로 수입된 품목이며, 러시아산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이는 최근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수출통제로 인해 향후 수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물품과 외국기업이 소유한 장비 등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러시아 정부는 국내 식량 시장 안정을 이유로 곡물 수출을 제한함.¹¹⁾
- 러시아 정부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 백설탕과 원당의 수출을 금지하고, EAEU 국가들을 대상으로 밀, 호밀, 보리, 옥수수의 수출을 6월 30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함. 다만, 기존의 수출 쿼터 및 개별 라이선스 한도 내에서의 수출은 허용된다고 발표함.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용 추진

- 러시아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의무화를 통해 외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하는 정책을 추진함.
-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운영체제 판매 중단과 어도비의 포토샵 판매 중단 등을 비롯해 세계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SAP, 오라클, IBM 등)들이 러시아에 대해 소프트웨어 판매와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소프트웨어 국산화와 공공기관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함.
- 또한 대체 소프트웨어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11) 45개 아프리카 국가와 최빈국들이 수입 곡물의 3분의 1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2. 투자 제재 대응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외국 기업의 러시아 내 자산 국유화 추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외국 기업의 러시아 내 자산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기업활동과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발표함.
- 이 법안에 따르면 비우호국의 외국 기업(외국인 지분 25% 이상)이 러시아 내 영업활동을 중단할 경우,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5일 이내에 러시아에서의 사업 재개 혹은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기업들이 이 명령을 거절할 경우 러시아 법원은 3개월 간의 법정 관리를 결정하고, 경매를 통한 매수 절차를 통해 국유화를 실시하게 됨.
- 러시아 시민단체인 '공공 소비자 주도'가 작성한 국유화 대상 가능 57개 외국 기업 목록에는 르노, 폭스바겐, 도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 이케아, 맥도날드 등이 포함되어 있음.¹²⁾

3. 금융 및 외환관리

외환통제 실시

- (의무 매각) 러시아 거주자(국적자 또는 법인)가 무역거래에서 획득한 외화의 80%를 3일 이내에 매각하는 조치를 시행 중임.
- (반출 통제) 3월 2일부터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는 6개월 동안 1만 달러 한도 내의 해외 송금만을 허용하고 있음.
- 거주자의 외환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임.
- 거주자의 대출계약에 따른 비거주자(외국 국적 소지자, 외국의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에 대한 외화(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송금 금지, 본인 명의의 해외 외화계좌로 송금 금지 및 은행 계좌 개설 없이 해외결제 서비스를 통한 해외송금을 금지함.
- 중앙은행은 3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개인의 시중은행 외화예금 인출을 1만 달러 한도 내에서 달러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초과 인출 시에는 루블화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함.
- 중앙은행은 3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 러시아 법인이나 자영업자가 해외 출장 목적으로 달러를 인출하는 경우 5천 달러를 상한으로 정하고,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인출 시에는 해당 은행이 중앙은행에 요청하도록 조치함.
- 비거주자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임
- 중앙은행은 3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 비거주자(단체 및 자영업자)의 외화(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인출을 제한함. 다만,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외의 외화는 금액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함.

12) <https://www.dp.ru> 2022년 3월 10일.



- 중앙은행은 외국 법인이 러시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및 러시아 내 외환시장에서 비거주자 단체(외국 대표사무소, 지사, 재외공관)가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거래금액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짐.
- 서방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은행에 예치된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까지(2022년 9월 1일) 루블화로 지급함.

비우호국 지정과 이들 국가에 대한 대응 제재

- 러시아 정부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48개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러시아 거주자가 비우호국 외국인과 거래하는 경우 러시아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
- 48개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회원국, 미국, 영국, 호주, 알바니아,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아이슬란드,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등임.
-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외국인에 대한 루블화 대출 제공, 러시아 거주자와 비우호국 외국인 간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 거래는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비우호국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모든 거래에는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의 조치가 적용됨.
- 러시아 정부는 대외채무의 루블화 상환 강행을 추진 중임.
- 러시아 정부는 외국 소재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국 외환보유액(전체 외환보유액의 절반 이상)이 동결된 것을 이유로 비우호국에 대한 채무는 루블화로 상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루블화 환산 월 1,000만 루블 이상 시 적용).
- 러시아 내 48개 비우호국 국적의 비거주자(개인 대상이며, 법인은 제외)의 해외송금을 금지함.
* 법인은 월 1만 달러 이내에서 송금 가능(4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 비우호국에 속한 비거주자(단체)는 러시아 내에서 달러를 비롯한 외화의 획득이 금지됨.
- 아울러 러시아 정부는 천연가스 수출 대금의 루블화 결제를 강행하고 있음.
- 비우호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계약 및 비우호국 국적 외국인과 체결된 천연가스 공급 계약 하에 러시아 공급자(가즈프롬 및 그 자회사)에 의한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지불은 4월 1일 이후 루블화로 이루어짐.

[표 2] 러시아의 주요 대응제재

금융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통제 : 무역거래 획득 외화의 80% 매각 ○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외환거래 제한
교역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러시아 국내산 제외) ○ 곡물 수출 제한 ○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추진(2025년 1월)
비우호국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에 참여한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제재 추진 ○ 비우호국에 천연가스 수출대금의 루블화 결제 요구 추진
기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사업을 중단한 비우호국 기업이 러시아 내에 보유한 자산의 국유화 추진



Ⅲ. 러시아의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정책 추진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지속

- (대러 제재 반대) 중국은 2022년 2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러시아 규탄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하였고,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비판하며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¹³⁾
- 리커창 중국 총리는 2022년 3월 양회 폐막 직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대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대러 제재는 세계 경제 회복에 충격을 주고, 이는 모두에 불이익”이라고 말하며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기존의 협력) 중국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 상황에서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2014년 이후 교역, 금융, 기술, 군사 등의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으므로 향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 러시아의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5년 11.9%에서 2020년에는 18.2%로 증가하였음.¹⁴⁾
- 러시아의 대중국 교역에서는 에너지 수출(2020년 대중국 수출의 60.3%), 기계 및 설비 수입(2020년 대중국 수입의 58.9%)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¹⁵⁾ 서방의 대러시아 에너지 및 기술제품 수출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중 간의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기업들은 2014년 이후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를 늘리고 있음. 주요 사례로 2014~15년 야말 LNG 프로젝트 지분 20% 확보, 중국 Sinopec의 러시아 Sibur사 지분 10% 확보, 2020년 중국 CNPC와 CNOOC의 북극 LNG-2 프로젝트 지분 20% 확보 등이 있음.¹⁶⁾
- 금융 및 외환 부문의 협력도 강화되어,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구성에서 중국 위안화의 비중이 2016년 12월 0.1%에서 2021년 6월에는 13.1%로 급격히 상승함.¹⁷⁾
- (에너지) 러시아와 중국 간에 최근 대규모 장기 에너지 계약이 추가로 체결됨에 따라 점차 에너지 교역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3월 4일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에 향후 25년 동안 연간 100억 m³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향후 10년 동안 총 1억 톤의 원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러시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천연가스 규모는 기존의 계약을 포함하여 연간 480억 m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중국 전체 천연가스 수입 규모의 25%에 달함.
- 러시아는 사할린 인근 해저에 위치한 유즈노 키린스코예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현재 가동 중인 ‘사할린-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을 통해 중국에 공급할 예정이며, 연결 구간에 대한 공사 등을 거쳐 2~3년 뒤부터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임.
- 러시아의 야말 LNG, 북극 LNG-2 사업에서도 중국 기업이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LNG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중국의 LNG 관련 기계설비의 대러시아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13)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11개국이 찬성하였으며, 러시아는 반대, 중국과 인도, UAE는 기권하였음.

14) IMF

15) <https://russian-trade.com>

16) <https://raspp.ru> ; <https://www.highnorthnews.com>

17) Bank of Russia,



러·중 에너지 협력

-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 비중은 원유 32.1%(최대 수출상대국), 천연가스 4.5%, 석유제품 2.8%, 석탄 17.6%(최대 수출상대국) 등임.¹⁸⁾
- 2020년 기준 중국의 에너지 수입에서 대러 의존도는 원유 14.9%(사우디아라비아[15.2%]에 이어 2위), 천연가스 7.8%(4위), 석탄 15.1%(3위) 등임.¹⁹⁾
- 기존의 가스 공급 : 러시아는 시베리아 치안다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2천 km에 이르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통해 중국에 공급하고 있음. 이 가스관은 2019년 12월 완공되었으며, 연간 공급량은 50억 m³로 시작하여 2025년에는 380억 m³으로 확대될 예정임. 2021년에는 이 가스관을 통해 중국에 105억 m³의 천연가스가 공급됨.
 - 2014년에 양국은 2018년까지 양국을 연결하는 가스관을 건설하고 30년 동안 연간 천연가스 380억 m³를 공급하는 내용의 4,0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함.
- 기존의 원유 공급 : 러시아 Rosneft와 중국 CNPC 간의 원유 장기 공급계약이 2009년과 2013년에 체결되었으며, 원유 공급을 위해 ESPO(Eastern Siberia - Pacific Ocean oil pipeline) 송유관이 2009년 12월 1단계, 2012년 12월 2단계로 건설됨.
 - 2009년에는 2011~30년 ESPO 송유관을 통해 연간 1,500만 톤의 원유를 중국으로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3년에는 2013년부터 2038년까지 3억 2,030만 톤의 원유를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

- (금융 및 기술) 러시아의 탈달러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으로 양국 간 금융 및 외환 협력이 확대되고 SWIFT 제재에 대응하여 양국 간 국제결제망을 구축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화웨이 등 중국 IT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들과의 기술협력 및 러시아 소비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하는 등 기술 부문에서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군수) 양국 간 군수 협력도 확대되어, 2017~21년 중 세계 5대 무기 수입국(4.8% 점유)인 중국의 무기 수입에서 러시아는 무려 81%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상대국임. 러시아의 무기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1.1%로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²⁰⁾

인도와의 경제협력도 확대될 전망

- (대러 제재 미참여) 인도는 중국과 적대관계임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2022년 2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러시아 규탄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하였으며, 서방의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 (군수) 중국, 파키스탄과 국경분쟁을 겪으며 군사적으로 대립 중인 인도는 러시아와의 군수·안보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러시아와 인도 간의 군수·안보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인 인도(11%)는 러시아산 무기의 최대 수출상대국으로, 러시아 무기 수출의 27.9%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²¹⁾ 2017~21년 중 인도 무기 수입의 46%를 러시아산이 차지하고 있음.

1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19)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20) 2017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세계 5대 무기 수입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호주, 중국 순이며, 이 기간 세계 5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임.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1. SIPRI.



- 2021년 1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며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러시아와 인도는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기술협정을 체결하고, 인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현대화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에너지) 러시아와 인도 간의 에너지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제재 이후 인도가 자국산 에너지의 주요 수출상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인도 역시 원유 수입을 주로 중동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²²⁾
 - * 인도는 전체 소비 원유의 85%를 주로 중동 산유국들로부터 수입(2021년 기준 일일 430만 배럴)하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3%에 불과하여 양국 간의 에너지 교역이 확대될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²³⁾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으로 1,300만 배럴 이상 구입하였는데,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원유의 규모(1,600만 배럴)에 육박하는 수준임. 한편, 4월 1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 간 에너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금융) 2022년 4월 초 러시아 중앙은행과 인도 중앙은행은 대러 제재 상황에서 양국 통화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 결제 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통상·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금융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 이라크는 2022년 3월 2일 유엔 긴급총회의 대러시아 규탄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하였으며, 이는 러시아와의 긴밀한 에너지 협력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²⁴⁾
-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자치정부(KRG) 관할 지역에 약 14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Gazpromneft, Rosneft, Lukoil 등 러시아의 국영 및 민간 에너지 기업들이 이라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서방과 적대관계인 이란이나, 이란과 밀접한 관계인 레바논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인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등 여타 중동 국가들도 서방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며 러시아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러시아는 향후 서방의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 중동 국가와의 에너지 교역 및 투자,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21)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1. SIPRI.

22) <https://www.cnn.com> 2022년 3월 28일 ; <https://www.kita.net>

23) <https://www.spglobal.com> 2022년 4월 2일

24) 2022년 3월 2일 개최된 유엔긴급총회 투표에서는 146개국이 투표에 참여하여 141개국이 찬성하였으며,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 5개국이 반대하였음. 중국,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남수단 등 35개국은 기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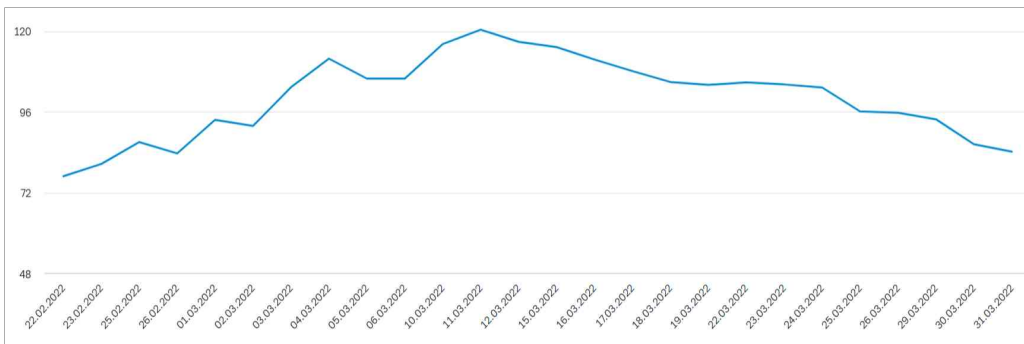
IV. 대러 제재의 러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

1. 거시경제적 영향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 : 경제의 역성장,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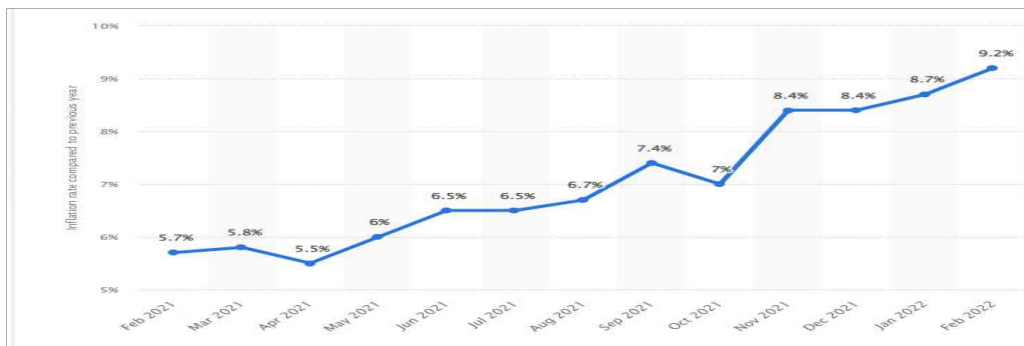
- 올해 러시아 경제에 대해 러시아 국책 연구기관인 '거시경제분석연구소'는 -6.3~-6.6%, 국제금융센터(IIF)는 -15%, JP Morgan은 -7%(2분기 -35% 예상)의 역성장을 전망함.
- 아울러 '거시경제분석연구소'는 올해 러시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은 2021년 12월 8.4%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긴장이 고조된 2022년 1월 8.7%, 2월 9.2%로 상승하였음. 러시아 경제부는 2022년 3월 25일 기준, 3월의 물가상승률이 201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15.66%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음.²⁵⁾
- 서방의 제재로 인한 상품수출입 감소와 미 달러화에 대한 루블화 환율 급등은 수입물가 폭등과 그로 인한 소비자물가상승의 핵심 요인임.
- 루블화 환율은 2022년 2월 말 80루블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일인 2월 24일 105루블로 급등한 데 이어 3월 11일에는 120루블까지 상승하였음. 이후 기준금리 인상, 외화 유출 차단과 의무매각 조치, 수입 감소에 따른 무역흑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점차 하락하여 4월 6일 83.4루블을 기록함.

[그림 4] 러시아 루블화 환율 변동 추이(단위: 루블/1달러)



자료: Bank of Russia

[그림 5] 러시아 물가상승률 추이(전년동기 대비)



자료: <https://www.statista.com>

25) <https://www.vedomosti.ru> 2022년 3월 30일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주가지수는 30% 이상 급락하였으며(RTS 지수 36.5% 하락, MOEX 지수 30.2% 하락), 이에 따라 주식시장은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 거래가 중단되었음. 3월 24일 주식 시장 재개장 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지수가 다소 상승함.
- 세계 주요 신용평가 3사의 러시아 신용등급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급격하게 강등되어 디폴트 바로 위 단계에 위치하고 있음.
- Moody's : Baa3 → B3 → Ca(10단계 하락) / S&P : BBB → BB+ → CCC-(9단계 하락) / Fitch : BBB → B → C(12단계 하락)

기술적 디폴트 발생 가능성 고조

-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계좌에 예치된 외환의 동결, SWIFT 제재에 따른 거래 불능,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 채무에 대한 루블화 상환 계획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 국채의 상환 불능 사태가 발생하는 기술적 디폴트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러시아 제재에 따라 러시아 금융기관과 중앙은행, 국부펀드와의 거래가 금지되었음. 다만, 미국 정부의 대외 경제제재를 관할하는 해외재산관리국(OFAC)은 5월 25일까지는 러시아 중앙은행 등이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의 이자, 배당금, 만기 상환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표 3] 러시아의 국채 원금 및 이자 상환 일정(단위: 백만)

상환기일	표시통화	이자	원금
5월 27일	달러	71	-
5월 27일	유로	30	-
6월 23일	달러	51	-
6월 23일	달러	184	-
6월 24일	달러	159	-
9월 16일	달러	73	-
9월 16일	달러	44	-
9월 21일	달러	66	-
9월 28일	달러	102	-
9월 30일	달러	74	359
10월 4일	달러	84	-
11월 20일	유로	16	-
11월 20일	유로	26	-
11월 27일	달러	71	-
12월 4일	유로	56	-
12월 23일	달러	51	-
12월 23일	달러	184	-
12월 24일	달러	159	-

자료: <https://www.cnb.com> 2022년 3월 15일

- 러시아의 외채규모는 2022년 3월 기준 4,400억 달러로, 이 가운데 달러화 표시는 2,600억 달러(정부 400억 달러, 기업 2,200억 달러), 루블화 표시는 1,800억 달러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의 동결에 따라 기술적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은 2021년 말 기준 6,300억 달러로 세계 4위 수준이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달러는 12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그 외의 구성은 금 1,390억 달러, 중국 국채 840억 달러, 나머지 3,960억 달러는 외화 채권 및 외국은행 예치분으로 추정됨.



산업 생산에 대한 악영향 전망

- 서방의 수출 제한에 따른 부품 공급 차질에 따라 러시아의 관련 제조업 생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반도체 등 외국으로부터의 조달이 불가피한 부품이 필요한 제조업이 우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대러시아 수출 제한 품목이 확대될 경우 타격을 받는 산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2. 교역 및 외환 부문에 대한 영향

에너지 부문과 비에너지 부문 모두 교역 감소 전망

- (에너지) EU와 서방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수출 규모가 급감할 전망이다.
- EU와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 또는 단계적 축소 정책에 따라 이들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에 대해 루블화로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EU 각국은 이에 대해 반대하여 양측이 대립하고 있음. 이는 러시아의 대EU 에너지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에너지 수출은 러시아 상품수출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대 에너지 수출대상 지역인 EU로의 수출 감소는 러시아의 경제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비에너지) 최혜국 대우 폐지에 따른 관세 상승으로 러시아 상품의 수출가격이 상승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러시아 상품의 수출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채무 지급에 지장 초래, 외환 공급 감소 전망

- 서방의 제재로 인해 해외 금융기관의 러시아 정부 및 기업 소유 계좌에 예치된 달러화의 사용 제한으로 대외채무 지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에너지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외환 공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3. 외국 기업의 사업 중단 및 철수

외국 에너지 기업들의 러시아 내 사업 중단

- 외국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 에너지 개발사업의 지분을 매각하고 프로젝트에서 철수를 계획하고 있음.
- 북극 LNG-2 사업에 참여 중인 프랑스, 일본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동결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이후 완공예정인 북극 LNG-2의 2, 3기 생산설비 건설이 연기됨.²⁶⁾
- 사할린에서 진행 중인 사할린1, 사할린2 유전 및 가스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Shell(사할린1, 사할린2)과 ExxonMobil(사할린1) 등의 외국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 지분을 매각할 계획임.

26) 「북극물류동향」(2022년 3월).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 p. 1.



- 이외에 BP는 Rosneft의 지분 19.75%의 매각(140억 달러로 평가)을 추진할 계획이며, Shell은 러시아에서의 사업 중단과 함께 에너지 구매를 중단하였음.

에너지 개발 관련 금융 부문의 협력중단

- 러시아 Novatek이 추진하는 북극 LNG-2 사업에 대해 예정되어 있던 이탈리아 금융기관의 5억 유로 규모의 대출이 중단되었으며²⁷⁾, 프랑스 Total*은 러시아에서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제공을 중단하기로 함.

* Total은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 추진할 계획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기업 활동 중단

- (제조업) 서방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 내에서의 생산 및 대러시아 수출을 중단하였음.
- Renault, General Motors, Volkswagen, Toyota 등 10여개 기업이 러시아 내에서의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Volvo, General Motors 등은 대러시아 수출을 중단함.
- (금융) Goldman Sachs, JP Morgan 등이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Visa, Mastercard는 제재 대상 러시아 금융기관의 결제망을 차단함.
- 러시아가 신흥국 주가지수(MSCI)와 글로벌 증시지수(FTSE)에서 배제됨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해외자본의 투자가 제한됨.
- (서비스) 식음료 체인점인 McDonald's, Starbucks 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였음.
- 영화 배급사인 Disney, Sony, Warner Bros. 등은 러시아에서 신작 영화의 개봉을 중단함
- 물류에서는 세계 2위의 화물운송 회사인 Maersk가 대러시아 해운 및 항만 서비스를 중단함.

27) <https://www.reuters.com> 2022년 3월 1일



V.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우리나라의 대러 제재 참여와 영향

- 우리나라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당시에는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22년에는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음.
- 러시아 7개 주요 금융기관(스베르뱅크, VTB, VEB, PSB, 앳크리티에, 소브콤, 노비콤)에 대한 제재 참여(3월 1일), SWIFT 제재 참여(3월 12일)
- 수출 제한 제재 참여(3월 4일) : EU, 일본, 캐나다, 영국 등과 함께 미국 FDPPR 통제 면제국에 포함
-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의 국제 거래 제재 참여(3월 7일)
- 이에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여 대응제재를 취하고 있음.

교역에 대한 영향

- (교역 감소) 러시아의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주요 수출품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감소 : 러시아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및 부품, 화장품 등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음.
- 수입 감소 : 대러시아 수입 비중이 높은 에너지(석유제품, 원유, 천연가스, 석탄), 광물, 희귀가스 등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에너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수입에서 러시아산의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 러시아는 현재 우리나라의 4번째 원유 수입상대국, 6번째 천연가스 수입상대국 및 2번째 석탄 수입상대국임. 3대 주요 에너지 자원은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상품수입액의 50~65%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분간 대러 에너지 교역 감소에 따른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비중 : 나프타 23.4%, 무연탄 40.8%, 유연탄 16.3%, 원유 6.4%, 천연가스 6.7%
- 러시아는 2021년(금액 기준) 우리나라 석유제품 수입액의 19.5%를 점유하는 1위의 수입상대국이었음. 러시아산 원유는 전체 원유 수입액의 6.4%를 점유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쿠웨이트에 이어 수입상대국 4위를 기록하였으며, 러시아산 천연가스도 전체 천연가스 수입액의 6.7%를 점유하여 카타르, 호주, 미국, 오만, 말레이시아에 이어 수입상대국 6위를 기록하였음.
- (희귀금속, 희귀가스, 광물 공급) 대러시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팔라듐(33.2%), 우라늄(20%), 로듐(23%), 백금(9.7%), 고철(11.5%) 등의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산물 공급) 명태(96.1%), 대게(100%), 대구(93.6%), 명란(89.2%), 복어(92.7%) 등의 높은 대러시아 수입의존도에 따라 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음.
- 향후 대러시아 수입 비중이 높은 에너지와 일부 희귀금속, 희귀가스, 광물 및 곡물, 수산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러시아 수입물량을 대체하는 수입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 현지 진출 기업들에 대한 영향

- 루블화 가치 하락과 러시아 국내 소비감소에 따라 러시아에서 현지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자동차, 전자, 식음료 기업들의 판매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달러화 환전 시 환차손 발생이 전망됨.
- 현지 생산공장에 대한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생산이 중단되거나 지체되고 있음. 자동차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3월 초부터 공장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물류 서비스 중단에 따른 부품 공급 제한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금융 및 물류 서비스에 대한 영향

-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시아 익스포저는 2022년 2월 기준 11.7억 달러로 전체 해외 익스포저의 0.4%에 불과하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
- 한편, 극동러시아 지역과 우리나라 간의 해상 물류망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조선업 및 건설업에 대한 영향

- (조선업) 러시아 경제의 혼란으로 러시아 기업들의 선박 발주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조선기업들의 대러시아 수주도 지체되는 영향을 받게 됨.²⁸⁾
- 2020년 말 이후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로부터 LNG 운반선 7척(1조 7천억 원 규모)을 수주하였으나, 현재의 대러 금융제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선박 인도대금의 지급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음.
- 삼성중공업은 북극 LNG-2 사업에 쇄빙선 건조를 위해 즈베즈다 조선소와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43억 달러 규모)하였으며, 대금 수급에 차질 가능성이 제기됨.²⁹⁾
- (건설업) 러시아 현지에 DL이엔씨, 현대엔지니어링 등 12개 기업이 21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러시아 국내 경제의 불안정으로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음.³⁰⁾
- 또한 서방의 대러 금융제재로 대금 결제가 지체될 수 있으며, 공사대금을 루블화로 받는 경우 큰 폭의 환차손 발생이 우려됨.

28) 「북극물류동향」(2022년 3월).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 p. 2.

29) <https://www.weeklytrade.co.kr> 2022년 3월 1일.

30) <https://www.ajunews.com> 2022년 3월 11일.



< 참 고 문 헌 >

백종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은행산업 현황 및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2년 3월 21일.
「북극물류동향」(2022년 3월).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European Commission. EU-US LNG trade. 2 February 2022.

IEA. Oil Market and Russian Supply.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1. SIPRI.

Bank of Russia

IMF

<https://russian-trade.com>

<https://www.statista.com>

<https://www.vedomosti.ru> 2022년 3월 30일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https://www.cnbc.com> 2022년 3월 28일

<https://www.cnbc.com> 2022년 3월 15일

<https://www.reuters.com> 2022년 3월 1일

<https://www.sedaily.com> 2022년 1월 25일

<https://www.dp.ru/> 2022년 3월 10일

<https://raspp.ru>

<https://www.highnorthnews.com>

<https://www.spglobal.com> 2022년 4월 2일

<https://www.weeklytrade.co.kr> 2022년 3월 1일

<https://www.ajunews.com> 2022년 3월 11일